

읍취헌 박은의 「영후정자(營後亭子)」 시제(詩題)와 관련된 영보정 창건내력 검토

김명래
소영문화연구소 소장, 건축환경 전공
eco5157@naver.com

- I. 머리말
 - II. 박은의 「영후정자」 시제에 대한 고찰
 - III. 「영후정자」와 관련된 영보정 창건 내력 검토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읍취헌 박은(攄翠軒 朴聞)은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다. 김창협(金昌協)은 “읍취헌이 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으뜸이다”라고 하였고, 김춘택(金春澤)은 “우리나라의 시는 읍취헌이 제일이다. 그에게 나이를 빌려준다면 동파(東坡)보다 나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밖에도 허균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이 읍취헌을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천재시인이었다.

영보정(永保亭)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하는데, 충청수영성 북쪽 구릉 우각부에 건립된 정자로서 전국 문인들의 발길이 조선왕조 내내 끊어지지 않았고, 130여 명 문인들의 문집에서 확인된 영보정 제영시만 해도 200여 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정자였다.

읍취헌 박은은 1503년 보령의 충청수영에 들러 10여 일간 머물 때에 「영후정자(營後亭子)」 5수를 지었다. 이후 「영후정자」는 시단에 여러 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첫째는 박은의 대표작으로서 조선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영보정 제영시의 전범으로 존송되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영보정이 「영후정자」의 유명세에 따라 명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 충청수영성(일명 蘇城)은 일약 조선의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후정자(營後亭子)」라는 시의 제목은 아무래도 그대로 읊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시사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영후(營後)의 정자가 영보정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읍취헌 박은은 무슨 이유로 ‘영 뒤에 정자’라는 정자의 위치 개념이 나타나는 시제(詩題)로 제영(題詠)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명승지에

서 이름이 없는 정자의 존재가 이해될 수 없는데, 그 이름마저 도외시하고 영(營, 절도영의 동헌 등 관부)을 대입하여, 어색한 전후(前後) 관계를 가지고 비문학적인 제목을 정했음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박은 본인은 따로 설명한 바가 없었고, 이후에 영보정 제영시문을 쓴 많은 문인들 역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 '박은의 시'와 「영후정자」 관련 영보정 제영시」를 주제로 다룬 논문과 저작들이 수십 편에 이르지만, 「영후정자」라는 불세출의 명시 제목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언급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박은의 시'와 '영보정 제영시'에 관련하여 발표된 논저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후정자」라는 시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간과(看過)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영보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제(詩題)를 그렇게 정했을 수도 있고, 영보정이 아닌 또 다른 이름 없는 정자가 있었다는 두 가지 개연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구본현(2012)은 “박은이 찾았을 때는 영보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의 시는 영보정 제영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은 이후에 수많은 영보정 제영시인들은 「영후정자」를 영보정 제영의 전범으로 영보정이 철회되는 조선말까지 추종하고 있었음을 간심(看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보정은 1504년(이의무의 「영보정기」)에 이량이 건립한 것으로 정설화되어있는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김명래(2019)는 「영보정기」에서 “양청(涼廳)이라는 오래된 객관을 헐고 영보정을 지었다”는 내용을 주목하여 “영보정은 1468년에 창건된 우의정 강순(康純)의 원정(園亭)이었다”라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영보정은 「영후정자」보다 36년 전에 이미 창건되었고, 「영후정자」라는 시제가 정해지게 되는 연유를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박은의 대표작인 「영후정자」라는 시제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해석은 영보정 창건연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분명해지는 관계이다. 영보정이 「영후정자」 시보다 먼저 창건되었다면 「영후정자」를 다룬 여러 논저 중에서, 앞서 언급한 구본현(2012)의 논문과 같이 “「영후정자」는 영보정 제영시가 아니다”라는 판단과 주장은, 본 연구의 논지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후정자」 작시 당시의 정황과 시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영보정의 창건설과 신축설에 관한 「아술록」과 「영보정기」의 문헌적 분석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박은의 「영후정자」 시제에 대한 고찰

1. 읍취헌 박은과 영보정

읍취헌 박은은 고령에서 1479년에 태어났고, 김종직(金宗直)과 최부(崔溥)¹ 문하²에서 수학하였다. 일찍이 15세에 문제가 알려지고 이를 기특하게 여긴 예문관 대제학 신용개(申用溉)³가 사위로 삼았다. 149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6년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권지(權知)로 보직하다가 수찬(修撰)에 이르렀다. 약관 20세이던 1498년 무오사화(연산 4) 때 김종직을

1 崔溥(1454-1504): 1488년 43명과 중국으로 표류 후 귀국하여 『錦南 漂海錄』 저술

2 『世譜』, “少從學于金佔畢齋. 崔錦南兩先生之門”

3 申用溉(1463-1519): 신숙주의 아들, 1502년 충청수사로 좌천, 1503년 형조판서, 1518년 좌의정.

비롯한 사림(士林)들이 화를 당할 때, 유자광 등을 비판한 상소로 인하여 1501년(연산 7)에 파직되었고, 26세 되던 1504년 갑자사화(연산 10)에 연루되어 귀양 갔다가 끝내 사형을 당했다.

파직 당시에 박은(朴聞)은 시절은 봄이지만 매서운 한파로 살얼음판 같은 시국이었던 1503년 2월 달에 충청 수사로 좌천 중인 장인 신용개를 만나 뵈려 충청수영에서 10여 일간 묵게 되었는데, 이때가 박은이 대면한 영보정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시기는 역모죄에 관련된 말이나 글은 금기사항이었고, 불문율이 실정법보다 더 무서운 때로써, 영보정에는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루된 강순의 역모사건이 아직도 어른거리는 시기였다. 그 사건도 유자광의 교활한 모함으로 야기된 것인데, 36년이나 지난 후에 박은 자신 또한 유자광의 표적이 된 채로 영보정에 기대어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아무튼 읍취헌은 영보정에서 영보정이라 불러보지도 못한 채 「영후정자」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고, 그 시는 이후 문인들에게 영보정 제영시의 전범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본인은 조선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조선의 3대 누정으로 부벽루, 영남루, 축석루가 손꼽혔으나, 문인들에게 있어 영보정은 3대 누정 못지않게 열광적인 애호를 받았는데 전승되는 시문(詩文)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김명래(2019)는 한강을 유람한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의 「기문」⁴을 들어 명승의 요건을 기술하였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경관을 모아 정자를 세웠더라도 명문(名文)을 만나지 못하면 명성을 얻지 못한다. 난정(蘭亭)도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로

4 『新增東國輿地勝覽』 3권, 漢城府 [산천] 조. “아, 땅이란 반드시 사람이 있음으로써勝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山陰의 蘭亭으로도 右軍이 없었다면, 무성한 숲 긴 대나무에 불과하였을 것이며, 黃州의 赤壁으로도 東坡가 없었다면, 높은 산 큰 강에 불과하였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이름을 날릴 수 있겠는가”

인하여 대나무 숲속에 한 정자가 명승지로 유명해졌으며, 적벽 역시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때문에 천하에 손꼽히는 명승지가 된 것이다. 경승의 요소는 덜하더라도 명시(名詩)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명승지로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보정의 승경화(勝景化)는 오로지 박은의 「영후정자」로부터 기인(基因)된 것이다. 영보정이 입지한 충청수영은 처음부터 유명한 승경지는 아니었다. 시인의 눈으로 통찰할 때는 대단한 기관(奇觀)이었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는 실제의 경관은 그렇게 빼어난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영보정은 박은이 기이한 의경(意境)과 작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며, 이 또한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존송 받는 읍취헌의 「영후정자」 시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 시⁵는 『속동문선』(1518)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충청수군절도영조에 영보정 제영시로 수록되면서 전국적으로 더욱 회자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박은의 「영후정자」로 인하여 영보정은 천하 명승이 되었고, 박은은 그 시로써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읍취헌 박은의 「영후정자」는 영보정을 중심으로 불가분의 관계였으나, 시제가 왜 「영후정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되고 있었다.

5 「영후정자」는 1518년에 편찬한 『속동문선』에 실렸고, 1530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수군절도영조에 영보정 제영시로 수록이 되었다. 그 당시에 『속동문선』은 국어교재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리교재로서 당시의 학인들에게는 필독서였으니 [...] (김명래, 「보령 영보정 창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획계) 35권 2호(2019), 105-114쪽).

2. 읍취헌 박은과 「영후정자」에 대한 선행연구

박은의 시와 영보정 제영시에 관한 연구 논저는 30여 편⁶에 달한다. 그 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10편의 논저에서 영보정 제영시와 박은의 시에 대한 시평(詩評)과 시인으로서의 평판(評判)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1은 「영후정자」시를 각 논문에서 언급했는지 여부와 「영보정기」를 인용하여, 영보정의 이랑 건립설 인정 여부 그리고 박은의 시와 영보정 제영시를 몇 편이나 분석했는가를 표시하였다. 표에서 ①-④번 논문은 영보정의 제영시와 환경을, ⑤-⑩번 논저는 박은의 시에 대한 평론으로써 영보정의 명승적 경관 설명과 박은의 천재적 시문(詩文)을 칭송하고 있다.

1) 박은의 「영후정자」시와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고찰

박은의 「영후정자」시에 관한 시평 몇 소절을 ①구분현(2012) 논문에서 들어 보자. “이수광(李睟光)은 ‘영보정에 걸려 있는 시들 중에서 박은의

6 참고문헌의 2.단행본 1권과 3.논문 10편, ⑫홍순석, 「박은 시의 수사기교 연구(1): 拗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4권(2004), 247-275쪽 ⑬김영심, 『읍취헌 박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⑭홍순석, 「박은의 생애와 시」(일지사, 1986) ⑮홍순석, 「읍취헌 박은 연구」, 『국문학논집』 11집(단국대학교, 1983) ⑯홍순석, 「읍취헌 시 연구」, 『국문학논집』 12집(1985) ⑰홍순석, 「林間論」, 『한국문학작가론』(2)(형설출판사, 1986) ⑱정원모, 「읍취헌 한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4집(1987) ⑲권영돈, 「읍취헌 생애와 시세계」, 『우리어문학연구』 제4집(1987) ⑳조영인, 『읍취헌 한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7) ㉑홍우흠, 「박은 한시의 특색」, 『한국어문논문집』 1집(1981) ㉒문승희, 『읍취헌의 한시고』,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㉓송만용, 『읍취헌 박은의 시문학』,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㉔양태순, 「淺水灣의 길목을 지키는 永保亭」, 閔丙秀의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태학사, 2001) ㉕김은수, 「攄翠軒 朴闇詩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7(2000) ㉖정시열, 「攄翠軒 朴闇의 漢詩研究」, 『영남학』 45집(2009), 107-148쪽 ㉗임두정, 「읍취헌 박은 한시의 공간이미지구조 연구」, 『어문논집』 47집(2011), 119-147쪽.

시만이 가장 널리 읽혀졌다'고 칭송하면서 자신의 작품은 '당돌서시(唐突西施: 추녀인 주제에 천하의 미인인 서시에게 드는 격)이다'라고 했고, "채팽윤(蔡彭胤)은 사람들이 영보정에는 박은의 시 이후로 시가 없다고 말하는데, 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박은의 시에 대적할 만한 시가 없는 것이라 하여, 박은의 시를 절대적인 경지로 존송"하였으며, 박윤원(朴胤源)은 "억지로 시 두 편을 지었으나 영보정의 진면목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으니, 진면목을 드러낸 박은이 영원히 영보정의 주인이 될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②이재숙(2016)은 '영보정의 명승 경관의 문학적 구현 양상과 전승'에 관한 내용이었고, ③김명래(2018)는 '영보정의 기관과 유식 및 시경공간'에

표1-박은의 시와 영보정 관련 논저 분석

순번, 저자 발표연도	「營後亭子」 언급 *	「영보정기」 인용**	박은의 시 분석	영보정 제영시 분석	논지
①구본현 2012	○	○	1	9	창작경향 해석
②이재숙 2016	—	○	—	6	정자 문학 전승
③김명래 2018	○	○	—	—	영보정의 詩境
④이세혁 2015	○	○	1	14	제영시 시명
⑤홍순석 2004	○	—	133	—	박은 시 해역
⑥김현주 2004	○	—	5	—	시의 風格 해석
⑦김은정 1999	—	—	11	—	시문 분석
⑧정민규 1990	—	—	10	—	시문학세계 이해
⑨전용숙 1989	○	—	20	—	詩史的 위치 정립
⑩구지현 1998	○	—	20	—	문예미 고찰

* : 본문에서 「營後亭子」 시에 대해 논하거나 설명한 것.

** : 본문에서 이의무의 「영보정기」를 인용하여 李良의 영보정 建立說을 설명한 것.

주) 논문 순번은 참고문헌의 순번과 동일함.

7 영보정에서 3년 동안 꿈꾸던 소원을 이루었다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박은의 뒤에 영보정을 찾은 것이어서 한 마디 시도 짓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였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가장 득의한 유람을 하였는데, 평생토록 가장 실망스런 시를 지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 자탄하였다.

관해 상론하였으며, ④이세혁(2015)은 영보정 제영시 15수를 논평하였다.

위와 같이 박은의 「영후정자」는 가장 많이 읽히며 절대적인 경지로 존송되었고 박은은 영원히 영보정의 주인이라는 세평(世評)을 받았던 것이다.

박은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는 읍취헌이 최고이다. 그에게 나이를 더 빌려준다면 동파보다 나았을 것이다. [...] 우리나라에는 칠언장편에 능한 이가 별로 없었는데 취헌만이 홀로 능했다”⁸고 김춘택(金春澤)이 말한바 있다. 아래 6편의 논저에서 읍취헌에 대한 문학사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⑤홍순석(2004)은 박은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의 생애와 가계 및 전반적인 문학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읍취헌유고(欸翠軒遺稿)』를 완역하여 이후 박은 연구의 초석을 닦았다. ⑥김현주(2004)는 “허균(許筠)의 『국조시산(國朝詩刪)』에서 박은 시에 대해 기발(奇拔: 특별히 뛰어나다)하여 발속(拔俗: 범속을 벗어났다)과 능우(陵遇: 걸출함을 뛰어 넘는다)한다”는 것을 주지하였으며, ⑦김은정(1999)과 ⑧정민규(1990)는 박은의 시문학을 분석하여 시문학 세계를 파악하는데 주목하였고, ⑨전용숙(1989)은 “김창협(金昌協)은 우리나라에서 문(文)에서는 마땅히 목은(牧隱)이 대가이며 시(詩)에서는 당연히 읍취헌이 으뜸”이라는 것과 박은의 시사적(詩史的) 위치를 고찰했으며, ⑩구지현(1998)은 “홍만중(洪萬宗)의 『소화시평(小華詩評)』에서 박은의 「영후정자」는 ‘신기(神奇)’라는 평을 소개하며 20여 수에 대한 성장시(盛唐詩)와 송시(宋詩)의 문예미(文藝美)를 고찰하였다.

2) 영보정의 건립에 관련된 견해

「영후정자」라는 시제는 본고에서 주축이 되는 논제가 되는데, 선행연구

8 金春澤, 『北軒集』, 雜說. “東方之詩 翠軒爲最 使假之年 勝於東坡 [...] 東人未有能作七言長篇 而翠軒獨能焉”

에서는 어떠한 언급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구본현(2012)은 "박은의 시는 그 제목이 '수영 뒤편의 정자'라고 되어 있을 뿐, 영보정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박은이 이곳을 찾았을 때 영보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박은의 시는 영보정 제영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의무(李宜茂)⁹의 「영보정기(永保亭記)」에서 "수영(水營) 안의 넓은 객관을 헐고 그 터에 영보정을 지은 것은 박은이 제영시를 지은 이듬해인 1504년(연산군 10)"이라고 하였다. 또 "영보정이 건립된 이후 수영성 일대가 명승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후대인들이 박은의 시를 영보정에서 창작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보정 제영조에는 오로지 박은의 시만을 실고 있으며,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영보정」을 천고(千古)에 드문 작품이라 칭송하였고, 다른 시선집에서도 제목은 모두 「영보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재숙(2016)은 "수영의 북쪽 모퉁이에 예부터 '양청(涼廳)'이라고 하는 객관(客館)이 있었는데, 비바람에 무너져 수리하지 못한 것이 오래 되었다. 공은 곧 아랫사람들과 도모하여 옛 터를 허물고 정자를 지어 영보(永保)라고 편액을 하다"라고 했다.

김명래(2019)는 위에서 언급되는 이의무의 「영보정기」¹⁰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양청을 객관이라고 했는데 객사(客舍)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9 李宜茂: 1477년(성종 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1502년 성균관사성·군기시정에 보직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지자 외직을 청해 홍주목사로 나갔다가 기한 내에 조세를 輸納하지 않아 한 때 투옥되기도 하였다. 1516년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기품과 도량이 활달하고 시문에 능했으며, 조정에 들어간 지 30여 년 동안 저축이 조금도 없이 가세가 늘 청빈했다 한다. 문집으로 『蓮軒雜稿』가 전한다.

10 李宜茂, 『蓮軒雜稿』 卷一, 「永保亭記」. "歲甲子春 咸川君李公諱良 以廉選爲忠清道水軍節度使 [...] 營之北隅 舊有客館曰涼廳 爲風雨所壞 不修者久矣 公乃謀於僚佐 撤舊而亭之 扁曰永保 ……"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객사라면 대궐을 상징하며 왕의 생사당인데 그렇게 허물어지도록 방치할 수도 없거니와, 북쪽 모퉁이는 일반적으로 객사의 입지로나 좌향상으로도 부적합지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에서 신성한 객사를 헐어내고 정자와 같은 유락시설을 짓는다’는 불경스런 발상이 용납될 수 있을까. 조선은 예제가 엄격한 획일적 중앙통제국가였다”라고 부적합하게 서술된 것을 비판한 바가 있다.

3. 「영후정자」 시평

「영후정자」는 천재시인 박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5수 전문¹¹에서 영보정의 기관(奇觀)과 박은의 고뇌어린 심상을 살펴보자.

계해년 2월에 내가 남쪽으로 고향에 돌아가 외삼촌을 뵈고 22일에 보령영(保寧營)에 이르러 10여 일 동안 머물면서 매양 산과 바다의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면 통음(痛飲)하며 즐겼다. 그리고 술이 깨면 반드시 시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으나 시를 지을 겨를이 없을 때도 있었으므로 당시에 지은 시가 많지는 않다.

첫째 수

地迫未窮千頃海 땅이 끝나 드넓은 바다는 다 보지 못하지만
 山開猶納一頭潮 산이 열려서 한 가닥 조수를 받아들이는구나
 急風吹霧水如鏡 급한 바람이 안개 불어 홀고 물은 거울 같은데
 近渚無人禽自謠 가까운 물가에 사람 없고 새만 스스로 노래한다
 客裏每爲淸境惱 객지에서 매양 맑은 경계 위에 고뇌하지만

11 한국고전번역원(db.itkc.or.kr) 번역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함.

日邊更覺故園遙 일변에서 다시금 고향이 아득히 멀을 깨닫노라
 苦吟不去乏新語 고심해 시 읊느라 안 떠나니 새 시구가 부족해
 愁見落暉沈遠靄 석양이 먼 하늘에 잠기는 광경 시름겨워 보노라

둘째 수

晚潮來處暫欹枕 저녁 조수 밀려드는 곳에 잠시 베개에 누웠다
 擡眼忽看洲渚生 눈길을 드니 홀연 새로 물가 생긴 게 보이누나
 朝暮應誰事呼吸 아침저녁으로 응당 그 누가 호흡하는 것이리
 乾坤終亦有虧盈 하늘과 땅도 마침내는 성쇠를 거듭하는 법이지
 南人浮海如行馬 남쪽 사람들은 배 타는 게 말 타는 듯하고
 澤國逢春更少晴 물나라는 봄을 만나 날이 조금씩 개는구나
 日日倚樓渾不下 날마다 누각에 기댄 채 내려오지 않노니
 怪聲時聽白鷗鳴 괴이하게 우는 백구 울음을 때때로 듣노라

셋째 수

平生病眼怯遐矚 평소에 눈병을 앓아 멀리 보기도 겁난 터
 尋丈之間殊不分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은 전혀 분간치 못한다
 鳥過猶憐一點雪 새가 지나가니 한 점의 흰 눈 같아 어여쁘고
 山橫但覺萬堆雲 산이 가로놓였으니 만 무더기 구름만 같구나
 西邊落日劇相濫 서쪽으로 떨어지는 해는 몹시도 흔들리고
 空裏玄花尤自紛 공중에 흩어지는 헛꽃은 매우 어지러워라
 隱几茫茫輒成睡 꿇안에 기댄 채 망망하여 문득 잠이 드니
 琅然鐵撥只堪聞 낭랑하게 울리는 현악기 소리 들을 만하여라

넷째 수

地如拍拍將飛翼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
 樓似搖搖不繫篷 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

北望雲山欲何極 북쪽으로 바라보매 운산은 어드메가 그 끝이고
 南來襟帶此爲雄 남쪽으로 와 띠처럼 두른 산세 이곳이 제일일세
 海氛作霧因成雨 바다 기운은 안개가 되고 이어서 비를 뿌리며
 浪勢翻天自起風 물결 형세는 하늘에 닿고 절로 바람을 일으킨다
 暝裏如聞鳥相叫 어둑한 중에서 마치 새 우는 소리 들리는 듯
 坐間渾覺境俱空 앉았노라니 몸도 경계도 공함을 깨닫겠노라

다섯째 수

憐我朝來獨吟處 어여빠라 내가 아침에 와 홀로 시 읊던 곳에
 一竿初日照簾旌 한 발 높이로 뜬 해가 주렴과 깃발을 비추누나
 風颿飽與潮俱上 돛단배는 바람을 가득 받아 조수와 함께 오르고
 漁戶渾臨岸欲傾 어촌의 집은 도무지 바닷가에 서서 기우뚱해라
 雨後海山皆秀色 비 온 뒤에 해산은 모두 수려한 빛을 띠고
 春還禽鳥自和聲 봄이 돌아오자 새들은 절로 소리 화창하구나
 客中奇勝猶須句 객지에 절경은 시구를 읊조리게 하지만
 平世文章不要名 태평한 세상에서 문장으로 명성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 「영후정자」는 25세의 청년시인 박은의 칠언절구로써 조선의 시단을 요동치게 한 불멸할 명작이다. 그 젊은 나이에 일반인들로 말하자면 5~6십에 가까운 인생 역정을 겪었으니 갑자사화에 피화된 그의 짧은 운명을 가슴 속에 쓸어 담았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다음해 갑자사화에 피화된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 쓸어 담았던 것이다.

客裏每爲清境惱 객지에서 매양 맑은 경계 위해 고뇌하지만
 日邊更覺故園遙 일변에서 다시금 고향이 아득히 멀을 깨닫노라

첫째 수 경련(頸聯)에서 박은은 연산군 치하의 조정에서 배척당한 처지에서 더 이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적 울분과 억눌려 오는 핍박이며 궁핍은 조선 땅에서는 해결 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간파하였다.

南人浮海如行馬 남쪽 사람들은 배 타는 게 말 타는 듯하고
澤國逢春更少晴 물나라(澤國)는 봄을 만나 날이 조금씩 개는구나

둘째 수 경련은 영보정에서 박은의 꿈이 제시되고 있다. '더 먼 곳 물나라'를 은유하였으니 남선북마(南船北馬)의 물나라는 중국인들조차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항주가 있네[上有天堂 下有蘇杭]'라며 살아생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마르코 폴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호화로운 도시"라고 했던 강남의 소주(蘇州)였다. 당시 박은의 세계관에서 유토피아로 자리 잡고 있는 소주(蘇州)는 사철 기온이 온난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부유하게 인생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꿈같은 이상향이었다.

특히 읍취현은 중국에 대한 지식¹²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시의 행간에다 유토피아에 대한 향수(享受)와 자유를 갈망하면서 답답한 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 심상적 방법을 암시하였던 것이다. 이후부터 영보정이 소재한 충청수영은 일명 소영(蘇營)으로 불리었으며 소성리(蘇城里)라는 지명이 현전되고 있는 것도 박은의 「영후정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12 朴聞은 호기심 많은 소년시절에 崔溥에게 수학하였다. 그의 『금남표해록』을 통찰한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고 실감나는 최부의 蘇州 체험담을 기억했을 것이다. 또 박은은 일찍이 사물에 通涉하였고 북경에 천추사로 다녀오는 등 중국에 대한 지식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平生病眼怯遐矚 평소엔 눈병을 앓아 멀리 보기도 겁난 터
尋丈之間殊不分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은 전혀 분간치 못한다

셋째 수 수련(首聯)은 현재의 박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토로하고 있는 독백이다. 연산군과 유자광 일당의 압박은 더 옥죄어오고 있었고, 백일도 안 되는 넷째를 두고 궁핍한 살림을 꾸려가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영후정자」 서두에 나오는 통음했다는 문구와 그의 고난한 행적은 시작(詩作) 자체가 그를 지탱해주는 이 세상에서의 초극(超克)이었다. 눈병으로 멀리 보기도 겁난다는 구절은 현실에 대한 표현이며, 또한 먼 곳을 갈 수도 없는 항구에 대한 푸념일 수도 있다. 정지상(鄭知常)이 읊었던 연광정의 「송인(送人)」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조선이란 나라의 항구는 모두가 어선이나 드나드는 어항으로써 철저한 쇄국으로 '이별과 만남'이 있는 포구가 없었으니 외국과는 단절된 갯가에 불과하였다. 또 국내는 유교적 이념의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강고한 도그마의 시대였다. 주어진 틀 안에서만의 사유체제였으니 자유로운 영혼이 속박당하고 있는 시대에 무엇을 창작하며 무엇을 본단 말인가? 세상의 진실과 속내를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없는 조선에서는, 차라리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나마 그저 멀리 보는 것이 상책이었을까.

地如拍拍將飛翼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
樓似搖搖不繫篷 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

넷째 수 수련은 영보정을 찾는 문인들에게 영보정 제영(題詠詩)의 전형(典型)을 제시한 시구로서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명구(名句)이다. 박은의 시를 평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넷째 수의 수련 첫 구절은 영보정 제영시를

쓰려는 문인들에게 신기(神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붓놀림이 삼가 두려워 지거나 각필정(閣筆亭)¹³에라도 온 듯하여 실제 붓을 놓은 문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暝裏如聞鳥相叫 어둑한 중에서 마치 새 우는 소리 들리는 듯
坐間渾覺境俱空 앉았노라니 몸도 경계도 공함을 깨닫겠노라

넷째 수 미련이다. 박은은 현실세계를 벗어나 온갖 고뇌로부터 정신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현실초극의 노래를 읊었다. 넷째 수 미련에서 비몽사몽간에 육신도 땅의 경계도 없는 공(空)에 이르렀으니 곧 소주(蘇州)였고 그곳은 정신적인 피안처였다. 조선의 문인들에게 영원한 로망인 소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영보정으로 설정했던 것이었으니, 영보정은 색(色)이든 공(空)이든 조선 땅에서는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고 머릿속을 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客中奇勝猶須句 객지에 절경은 시구를 읊조리게 하지만
平世文章不要名 태평한 세상에서 문장으로 명성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섯째 수 미련에서 객지 어디든지 절경을 대하면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시상이 마냥 떠올라 시를 읊조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으니 박은은 천성이 시인인 것이다. 그러나 태평한 세상에서 시인으로서 명성은 바라지 않는다면서 끝을 맺었는데, 이는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반어법 표현일 것이다.

13 擱筆亭: 李白이 시를 쓰려다 崔顥의 黃鶴樓 시에 탄복하고 붓을 놓았다는 고사에 따라 후세인들이 세운 정자.

박은은 일반 상식의 궤에서 벗어난 제목을 붙인 「영후정자」 시어의 행간에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고스란히 적셨던 것이다. 또한, 그는 세상의 끝자락을 보는 듯한 심사로 천하 명승지를 자유롭게 섭렵하면서 타고난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운데 금자탑 같은 시를 지어 이태백이나 소동파같이 천추에 빛나는 명예를 누리려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의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던 것이다.

Ⅲ. 「영후정자」와 관련된 영보정 창건내력 검토

읍취현 박은은 조선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았고 「영후정자」는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후 영보정의 제영시를 짓는 문인들은 그 시를 전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영보정과 「영후정자」 그리고 박은의 시를 주제로 출간된 논저는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어째서 영보정을 대상으로 지은 제영시가 분명한 것 같은데, 시제가 「영후정자」이었나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영보정은 이의무의 「영보정기」를 통해서 1504년 충청수사 이량이 신축한 것으로 정설화되어 있었고, 영보정 제영시를 지은 수많은 문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면의 내막을 살펴보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저 「영보정기」를 비판 없이 인용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영후정자」 제영시(1503)와 「영보정기」의 영보정 신축(1504)의 시제(時制)를 살펴보면 시간차는 1년에 불과하다. 「영보정기」의 이량 영보정 신축 설이 사실이라면, 「영후정자」에서 지칭하고 있는 정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말인가?

전자에 정자가 있었다면, 「영보정기」에서 ‘영보정 신축’ 해석은 오류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1. 「영후정자」 시제와 영보정의 창건

1) 「영후정자(營後亭子)」 시제(詩題)

「영후정자」는 ‘충청수영(忠淸水營) 뒤에 위치한 정자(亭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정자의 제영시이면서 정자의 명칭을 마다하고 그렇게 시제(詩題)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논저들에서는 「영후정자」를 영보정의 제영시로 인식하고 있을 뿐 그러한 연유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한 의문점을 하나의 과제로 다뤄보려는 노력보다는 이의무(李宜茂)의 「영보정기(永保亭記)」¹⁴를 전거(典據)로 삼았고, 기록된 내용 그대로 영보정은 1504년에 이량(李良)이 지은 것으로 단정(斷定)하였다. 그렇다면 박은이 1년 전(1503년)에 쓴 「영후정자」에서 정자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 정자는 이름도 없었던 말인가? 명승지에 현판과 이름 없는 정자가 없을 수가 없을 것이며, 만약에 이름이 없었다면 정자의 이름을 능히 지었을 박은이라 생각된다.¹⁵ 여기에서 이 정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정자의 이름이 있었다면 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영후정자」 시제가 정자의 이름을 도외시하고 ‘수영을 기준으로 위치 관계’로 표현되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1에 당시 충청수영과

14 李宜茂, 앞의 책.

15 옛사람들은 ‘天不生無祿之人 地不張無名之草’에서와 같이 이름 없는 풀이 없다 했을 정도의 자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강순은 현직 우의정으로 재상이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재상이 현판도 없는(이름 없는) 정자를 세웠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1-충청수영과 영보정 위치도

영보정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이 지도는 1468년의 정황으로, 영(營, 객사 및 동헌 등 관부) 뒤에 있는 높은 위치에 영보정이 건립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영보정이 위치한 구역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채로 우뚝 솟아 있는 구릉지이다.¹⁶ 이곳이 「영후정자」 넷째 수 수련에서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地如拍拍將飛翼 樓似搖搖不繫篷)”라고 표현된 절경지라 하겠으며, 또한 영보정을 찾는 문인들에게 영보정 묘사의 전형(典型)이 된 명시구라 하겠다.

박은의 「영후정자」를 ‘영보정 강순 창건설’에 맞춰보면, 당시에 영보정은

16 김명래(2019), 앞의 논문.

창건된 지 36년이나 되었으므로 많이 낡았을 것이다. 그래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내력과 영보정이란 이름만큼은 전승되고 있었을 개연성의 크므로, 읍취헌 박은은 이 모든 연유를 간파하고 있었을테지만 함구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읍취헌 사후에도 영보정을 유람한 수많은 문인들이 「영후정자」를 전범으로 받들며, 영보정 제영시를 짓고 영보정 기문¹⁷⁾을 남겼지만, ‘강순의 영보정 창건설’은 철저히 내색하지 않고 지켜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량(李良)의 영보정 신축설

1505년 충청감사 허집(許輯)은 영보정에서 베푼 잔치를 베풀며 참석한 홍주목사 이의무에게 작년(1504)에 이량(李良)이 건축한 ‘영보정 기문’을 쓰도록 권유하였다. 이의무는 ‘강순의 영보정 창건’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의무도 영보정의 원래 이력을 거론하지 않고 이량(李良) 중심의 「영보정기(永保亭記)」를 지었고, 그 기문이 지금까지 영보정 창건에 관한 정설로 통하고 있다.

반면에 「영후정자」 시가 박은의 대표작이며 영보정 제영시로서 전범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왜 시제가 「영후정자」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박은 이후 400년 동안에 영보정 제영시를 썼던 수많은 문인들에게 공론화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량의 영보정 신축설은 박은의 「영후정자」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정자와 결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보정의 건립은 이의무가 1505년에 지은 「영보정기」에서 “양청이라는

17 구사맹(具思孟)이나 신익성(申翊聖) 등이 「영보정 중수기(重修記)」를 지었지만 ‘강순의 영보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정약용(丁若鏞)도 「영보정연유기」를 저술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이안눌(李安訥)은 1607년 홍주목사 재임 시 영보정에 올라 (...) 고조부 이의무의 「영보정기」와 진외증조부 박은의 「영후정자」 편액을 보고 몹시 흥분되었으나, (...) ‘강순의 영보정 창건’ 사실은 그의 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김명래(2019), 앞의 논문).

객관을 헐고 영보정을 지었다(舊有客館曰涼廳 撤舊而亭之 扁曰永保)”는 기록을 전거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명래(2019)는 『아술록』을 근거로 들어 비합리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 구본현(2012)은 아예 「영후정자」 시는 영보정의 제영시가 아니라고 하였다.

박은의 시는 그 제목이 ‘수영 뒤편의 정자’라고 되어 있을 뿐, 영보정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박은이 이곳을 찾았을 때 영보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박은의 시는 영보정 제영시가 아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의무의 「영보정기」에 기록된 ‘이량 신축설’만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보정기」의 영보정 건립 기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번역에서 오류(誤謬)가 엿보이기도 한다.

“양청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었는데 […] 옛것을 헐고 정자를 지어 영보정이라 편액하다[①舊有客館曰涼廳 […] ②撤舊而亭之 扁曰永保]”에서 ①구절은 영보정을 창건하는데 결들일 필요가 없는 연문(衍文)에 해당될 것이며, ②구절은 모호하게 표현하여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이 되었다. 새로 지었다면 창건(創建), 신축(新築) 등의 건축용어를 사용하면 확실한 표현이 되겠는데, ‘정지(亭之)’¹⁸라고 표기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축이라면서 옛것을 왜 헐어야 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정자를 지었다’해도 양청(?)이라고 지칭한 건물을 중수(重修)하거나 재축(再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 검토 결과를 비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18 亭之에서 之는 동사, 대명사, 개사로 쓰이며, 이두식에서는 之는 종결어미로 사용된다.

- ㉑ 양청이라는 건물 명칭은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 양청이 곧 기존의 정자(亭子)였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량의 영보정 신축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 ㉒ 따라서 이량은 영보정을 창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자(양청?)를 개축(改築, 혹은 再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강순의 영보정 창건설

강순의 영보정 창건에 관한 사실은 김명래(2019)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맹휴(李孟休)¹⁹의 『아술록(蛾述錄)』²⁰에 기록된 “영보정은 예종조에 우의정 강순(康純)²¹의 원정(園亭)으로 남이의 옥사에 연관되어 사형당한 후에 몰수되어 수군절도영에 속하게 되었다(永保亭本 本睿宗朝 相國康純園亭)”²²는 내용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영보정은 강순 개인의 정자였고 애초부터 명칭이 영보정(永保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창건연도는 예종 즉위년에 강순이 사형당했으므로 1468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영보정기」의 이량 영보정 건립

- 19 李孟休(1713-1751): 조선 후기의 문신, 號: 杜山, 本貫: 驪州, 父는 실학자 李瀾이며 星湖 李瀾의 아들이다. 1735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74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744년 예조 정랑으로 재직하면서 『春官志』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였고 1745년 萬頃縣令으로 부임하였다. 저술로는 『蒼臺源流』一卷, 『接倭歷年攷』二卷, 『春官志』, 『居官日錄』, 『心遠編』, 『蛾述錄』, 『家傳礪日餘錄』 등이 있다. <규장각 저자소개 인용>
- 20 『아술록(蛾述錄)』 「湖遊雜錄」(규장각 소장 古 3436-13): 李孟休의 蛾述錄 중에 저자가 충청도 홍성, 보령일대를 유람했을 때 문견한 일들을 적은 잡록이다. 安大進, 洪可臣, 綠雲洞 고사, 趙鳳瑞, 藍浦石, 徐致武, 靑蘿洞, 永保亭, 李貞敏, 충청도의 해안 경비, 보령현의 鄉長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규장각 해제, 책 내용소개 인용>
- 21 康純(1390-1468): 무신, 1467년 李施愛 난을 魚有沼·南怡 등과 함께 반란군을 평정. 1467년(세조 14) 7월 우의정. 1468년 10월 柳子光의 무고로 일어난 남이의 옥사에 연루되어 사형당함.
- 22 『蛾述錄』(규장각 소장), “永保亭本 本睿宗朝 相國康純園亭 康桐死於南怡之獄 沒入官 遂爲水軍節度營〔…〕”, 36-37쪽, 편찬연도는 1741년으로 추정된다.

설보다 36년이나 앞서 창건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소유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영보정이 위치해 있던 북쪽 구릉지는 강순의 개인소유지였고, 구릉지 아래 남쪽 평탄지가 충청수영의 주둔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²³

이 절의 검토 결과에서 간취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 ㉓ 강순의 영보정은 「영보정기」의 이량 건립설보다 이미 36년 전에 창건되어 있었다.
- ㉔ 영보정은 충청수영 기준으로 볼 때에 ‘영 뒤쪽에 위치한 정자’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 정자의 이름을 도외시하고 ‘수영 뒤에 정자’라고 시제를 정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강순의 영보정 창건사실 은폐 이유

‘강순의 영보정 창건설’이 사실이라면 영보정이라는 정자가 이미 실재하였던 것인데, 왜 「영후정자」 즉 ‘수영 뒤에 정자’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영보정의 창건자는 강순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400여 년 긴긴 세월동안이나 영보정은 이량이 신축했다고 하였을까?

조선의 문인들은 글을 쓰는데 있어 늘 조심하고 크게 경직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사상·종교·정치적으로 강한 독선이 흐르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어렵게 된다. 특히 성리학이라는 교조적 도그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창작의 자유를 갖는 건 거의 불가할 것이다. 글귀 한 줄로 인한 필화(筆禍)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고, 사문난적(斯

23 『여지도서』의 「충청수영지도」 및 「1872년 지방지도, 보령부」의 충청수영 지도 참조.

文亂賊)으로 몰려 혹심한 사상탄압을 받기가 십상인 사회였으니 문학적 저술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박은은 충청수영에서 「영후정자」를 지을 때, 36년 전에 강순이 영보정을 창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영후정자」 둘째 수 미련과 넷째 수 수련에서는 누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각이 바로 영보정이다.

日日倚樓渾不下 날마다 누각에 기댄 채 내려오지 않노니
樓似搖搖不繫篷 누각은 흔들흔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

날마다 ‘누각’에 기대었고, 넷째 수 수련에서의 ‘누각’ 표현은 천고의 명구로 회자되고 있는 시구가 아닌가. 이 시에서 루(樓)는 누각이며 곧 정자였던 것이다.

이량이 영보정을 신축하기 1년 전에 이러한 시어(詩語)를 구사했다는 것은 누정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정자만큼은 건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며, 강순이 창건한 영보정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박은이 「영후정자」에서 읊은 누각은 이의무의 「영보정기」에서 언급되는 양청과 같은 건물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공시적 관점에서 양자는 정자의 이력과 그 명칭을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보정기」에서는 ‘낡은 건물 양청을 헐어내고 새로 지었다’고 둘러댔던 것이며, 박은은 강순이 지은 영보정을 도외시하고 시제를 「영후정자」라고 예들렸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왜 그래야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미 『아슬록』에서 밝혀진 것처럼 영보정은 ‘강순(康純)의 원정(園亭)’이

었는데, 강순이 역적으로 처형된 후에 몰수되어 충칭수영에 귀속된 정자였다. 여기에서 그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역신 강순’이 지은 꺼림칙한 영보정을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금기(禁忌)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뒤편에 정자[營後亭子]’라고 시제를 둘러 붙이는 것이 그 시국에서의 묘책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조시산(國朝詩刪)』은 조선의 대표적인 시선집이다. 그러나 저자인 허균이 역모죄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금서처럼 여겨졌는데, 허균 사후 80년이 지난 후에야 대단한 기개를 가진 박태순(朴泰淳)이 간행하였다. 『아술록』은 강순 사후 270여년 만에 편찬되었지만,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 중에서 이맹휴가 강순의 영보정 창건 사실을 기록하였으니 이 또한 용기가 돋보이는 결단이라 하겠다.²⁴

요컨대 이 절에서의 검토내용은 강순(康純)이 영보정을 창건했으나 역신으로 처형된 전력 때문에, 영보정의 연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박은과 이의무는 공히 ‘강순의 영보정 창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강순의 영보정 창건사실 자체를 혐피(嫌避)했던 것이며, 그러한 연유로 「영후정자」나 「영보정기」에서는 강순의 영보정 창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3. 검토

「영후정자」라는 시제를 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동기는 앞에서 논한

24 이맹휴는 문인들의 이러한 침묵 모드를 273년 만에 전환시킨 강골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당시는 강순이 복권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수사 이량은 강순이 세운 정자 본래의 이름인 영보정 현판을 그대로 다시 걸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장다운 용단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된다(김명래(2019), 앞의 논문).

바와 같이 영보정의 창건 연도가 「영후정자」보다 앞서거나 뒤서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 「영후정자」 시제를 ‘영보정’이라고 했으면 간단해지는 것을 「영후정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와 왜 그랬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영보정의 창건기의 전모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떠나 통시적으로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영보정은 1468년에 강순이 창건했으나 바로 같은 해에 남이의 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영보정과 토지는 충청수영에 몰수되었다. 읍취헌 박은이 1503년 충청수영에 머물면서 「영후정자」시 다섯 수를 지었는데, 이 시의 유명세로 인하여 영보정 또한 전국적인 유명 정자가 되었다. 그런데 박은은 시제를 「영후정자」라고 정했고, ‘강순의 영보정’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충청수사로 부임한 이량은 영보정을 사실상 재축하면서 원래의 명칭으로 영보정 현판을 붙였던 것이다.

이의무²⁵는 「영보정기」를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첫째는 강순의 영보정 창건에 대한 언급을 접어두고 이량이 영보정을 지었다는 다소 불명한 한자 표현에 그친 내용이 그것이다. 이 기록에서 무관한 것 같은 양청을 적시하면서 영보정 편액을 강조한 것은 ‘강순의 영보정 창건’을 염두에 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사적으로 신축·창건·개축 등의 건축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亭之)’라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간접표현을 하였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박은의 「영후정자」시에 대해서 한 구절도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데에 있다. 시절은 박은이

25 이의무는 영보정에 올라 박은의 「영후정자」가 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셋째 아들 李符은 박은과 죽마고우였으며 詩歌四傑로 불렸던 수재였다. 아들이 박은과 친구라는 것만으로 100대의 장형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의 고뇌와 「영후정자」가 千古의 명시임에도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책도 있었을 것이다 (김명래(2019), 앞의 논문).

갑자사화에 피화되어 처형당한지 1년째가 되는 연산군의 폭정과 유자광 같은 간신배가 발호하는 불안한 정국을 생각했음이다. 이의무 또한 실얼음 판과 같은 중앙조정을 피해 홍주목사로 숨죽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빌미가 될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요컨대 영보정은 '1468년 강순의 창건설'이 '1504년에 이량의 신축설'보다 문헌 기록의 구체성으로나 정황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박은이 1503년에 읊조린 「영후정자」는 영보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목에 정자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은 사후에 영보정 제영시를 지은 문인들은 한결같이 「영후정자」를 영보정 제영시의 전범으로 숭앙하였다. 이처럼 「영후정자」는 제목이 어찌되었던 간에 영보정 제영시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영보정의 강순 창건설이 사실이라면, 박은은 「영후정자」를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강순의 영보정을 험파했던 것이며, 이의무 또한 「영보정기」에서 강순이나 박은 같은 역신들의 등장을 당연히 꺼렸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 진다.

요컨대 이상에서 검토해 본 것처럼 영보정 창건은 '강순 창건설'이 '이량 신축설'보다 더 타당성이 크고 사실적이라고 판단되었다.

IV. 맺음말

본고는 영보정과 「영후정자」 및 읍취헌 박은의 시를 주제로 출간된 논저가 30여 편에 달하는데 간과(看過)되었던, 조선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았던 박은의 대표작인 「영후정자」의 시제(詩題)가 제영시임에도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영보정의 창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전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1503년에 충청수영에서 읍취헌 박은이 쓴 「영후정자」는 영보정 제영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영보정 자체가 역신 강순이 창건하였기 때문에 감히 ‘영보정’이라고 제영하지 못하고 「영후정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다고 추정하였다.

둘째, 1505년도에 이의무가 작성한 「영보정기」는 이미 존재하는 영보정(양청)을 헐어내고 1504년에 개축(改築)했다고 보아야 할 개연성이 크다. 이의무는 건축용어로서 의미가 분명한 신축, 창건, 개축 등의 용어 대신에 뜬금없이 ‘양청이라는 옛 건물’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정지(亭之)’라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을 쓰는 등, 이량이 신축한 영보정이 과거의 건축물과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셋째, 박은이 영보정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이의무가 「영보정기」에서 원래의 영보정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는 영보정을 강순이 창건했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강순이 역신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은 험피대상이었다는 정황상 추정이 가능하였다.

넷째, 영보정은 이의무의 「영보정기」에 의해 이량의 1504년 영보정 신축설이 정설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1740년경에 펴낸 이맹휴의 『아술록』에서 1468년에 강순이 영보정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영보정은 오랫동안 ‘이량 신축설’이 통설화되었기 때문에, 『아술록』의 ‘강순 창건설’과 「영보정기」의 ‘이량 신축설’ 중에서 어느 쪽이 참인가에 대한 판단은 차체에 천착해야할 과제로 넘기면서, 한편 이러한 논점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李孟休, 『蛾述錄』, 奎章閣 所藏 古 3436-13.

李宜茂, 「永保亭記」, 『蓮軒雜稿』.

2. 단행본

홍순석, 『박은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사, 2004.

3. 논문

구본현, 「충남 보령의 永保亭 題詠詩 연구」. 『한국한시연구』 20권 20호, 2012, 337-372쪽.

구지현, 「朴闇 詩의 文藝美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명래, 「충청수영 영보정의 遊息과 詩境 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획계) 34권 8호, 2018. 77-86쪽.

_____, 「보령 영보정 창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획계) 35권 2호, 2019, 105-114쪽.

김은정, 「읍취현 박은의 교류와 유람의 한시 천마잡두록」. 『한국한시작가연구』 4권, 1999, 201-229쪽.

김현주, 「읍취현 박은 시의 풍격 연구」. 『한문학논집』 23권, 2004, 33-55쪽.

이세혁, 「保寧永保亭 題詠詩 研究」.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재숙, 「內浦 지역 누정문학 연구: 忠清水營의 永保亭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4권, 2016, 285-317쪽.

전용숙, 「박은 한시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정민규, 「읍취현 박은의 한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국문초록

영보정(永保亭)은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충청수영성에 소재하는 정자이며, 읍취헌 박은(擘翠軒 朴聞)은 조선최고 시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로써 1503년에 「영후정자(營後亭子)」 5수를 이 영보정에서 지었다.

이 시는 읍취헌의 대표작으로써 이후 사백년 동안 영보정 제영시의 전범으로 존송되었으며, 이 시의 유명세에 따라 영보정은 전국적인 명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충청수영은 천하의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영보정과 「영후정자」 시는 불가분의 관계로써 당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목대상이지만 그 시제(詩題)가 왜 그렇게 작정(酌定)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박은은 어찌하여 「영후정자」 시가 어떤 정자의 제영시(題詠詩)임에도 그 정자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실체가 아닌 허상(虛像)을 내세워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당시에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사회에서 사화(士禍)나 정쟁의 옥사(獄事)에서의 멸문(滅門)과 참혹한 극형 집행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극대화시켜 주어 생각만 해도 치를 떨게 하였고, 사화(史禍)의 사례는 문인들에게 있어 글을 쓸 때에는 신중하게 앞뒤로 재보고 또 생각해 본 후에 붓을 잡도록 생활화되어 있었다고 본다.

왜 「영후정자(營後亭子)」라고 시제를 붙였을까 라는 과제는 ‘영보정은 1504년 이량(李良)이 처음 지은 것이 아니라, 1468년 강순(康純)이 창건했다’는 김명래(2019)의 영보정 강순 창건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박은은 「영후정자」를 지을 때 영보정이 36년 전에 강순이 창건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은 이후에 영보정 제영시를 지은 문인들도 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순은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류 되어 사형당한 대역죄인인데, 그가 창건한 영보정을 시의 제목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문인들은 박은의 시에 관련된 연구나 영보정에 관련된 연구에서, 「영후정자」라는 시제가 왜 그래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겠지만, 그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지는 아니하였다.

투고일 2020. 3. 19.

심사일 2020. 7. 7.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영보정(永保亭, Yeongbojeong), 박은(朴暲, Park Eun), 「영후정자(營後亭子, Yeonghujeongja)」, 강순(康純, Kang Soon), 충청수영(忠淸水營, Chungcheongsooyeong)

Abstracts

A Study on Park Eun's Poems with Title of "Yeonghujeongja"
and the Concealment Establishment of Yeongbojeong in
Boryeong
Kim, Myung-rae

Yeongbogjeong is a pavilion located in Chungcheong Sooyeong Castle, Soseong-ri, Ocheon-myeon, Boryeong-si, and Eubchwiheon Park Eun-eun, the most respected poet of the Joseon Dynasty, wrote 5 poems in the "Yeonghujeongja" in 1503.

As an Eubchwiheon's representative work, the poem was honored as a role model of the poem in Yeongbojeong for the next four hundred years, with this poem's popularity, Yeongbojeong became to join the ranks of nationwide famous pavilions while Chungcheong Sooyeong became the most popular destination in the world.

As the poems of Yeongbojeong and "Yeonghujeongja" are inseparable like this, they are subjects of attention from that time to the present, but it was not discussed why the title of the poem was so decided.

So, in this study, it is to be revealed that the reason why Park Eun was unable to proudly present the pavilion and he had to put on a falsehood, not a real one even though "Yeonghujeongja" was a poem about a pavilion, and the political factors at the time.

In Joseon Dynasty society, the destruction of a family in a massacre of scholars or a serious crime of political strife and the brutal execution to death made people shudder at the bare thought of it by maximizing their fear, and it seemed that the case of Sahwa (damage caused by historical records) made the writers hold their brush when writing after carefully considering and thinking over and over.

The answer to why he titled the poem "Yeonghujeongja" came from a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Yeongbojeong by Kim Myung-rae (2019) that 'Yeongbojeong was not first built by Lee Ryang in 1504, but it was established by Kang Soon in 1468.'

When Park Eun wrote "Yeonghujeongja", he knew that Yeongbojeongja was

built by Kang Soon 36 years ago. The writers who later wrote poems about Yeongbojeon after Park Eun also knew this, but they didn't mention anything, probably because it was the unwritten rule of the time. Kang Soon was a high-treason criminal who was executed because he was related to Namyee's conspiracy, then how they could write Yeongbojeong, which he established, as the title of a poem.

So far, writers have doubts as to why the title of the poem "Yeonghujeongja" should be, but have not identified i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traced its reasons in studies related to Park Eun's poems or Yeongbojeo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evealing inside story is an achievement of this study.

